
I

대경도





여수시 
 변천사

I. 대경도

1. 사회·지리적 환경

가. 사회·지리적 환경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 면 적 : 2.32km², 해안선 길이 11.70km
- 위 치 : 위도 127° 43', 경도 34° 42'

경도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길쭉한 형태로 가막만 안쪽에 깊숙이 위치하며 동·서로 화양 반도와 돌산도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여수 내항과 대경도 사이를 가로질러 여수해협으로 통하는 수도(水道)를 끼고 있어서 많은 선박이 항행한다.

또한 내항과 돌산 우두리 사이에는 돌출부가 목을 이루고 있어 밀물과 썰물의 조수 차로 인하여 조류가 빠르며, 창조류는 동쪽 입구에서 서류하여 장군도와 대경도를 돌아서 남류하고, 낙조류는 그 반대로 흐른다. 주변 해역은 6~10m 수심을 보이며 연안은 섬 북단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간석지가 발달하여 1.8m 이내의 낮은 수심을 유지한다.

미래에셋그룹이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국제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상업시설 등이 202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고 국동항에서 경도 간 연장 1.35km의 연륙교 가설이 설계 중이다.

1) 인구현황

2022년 1월 1일 현재 대경도는 주민등록상 333세대 586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남자는 298명, 여자는 28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 인구 현황

연도별	세대수	인구수(명)	남(명)	여(명)
1973년	-	1,740	-	-
2003년	400	1,413	-	-
2018년	300	702	-	-
2022년	333	586	298	288

2) 토지현황

토지면적 2.32km² 중 이용 현황은 논 0.11km², 밭 0.87km², 임야 1.17km²이다. 과거에는 논농사도 지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농업보다는 어업 종사율이 높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감자, 콩, 마늘 등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고 남은 소량은 여수 시내로 출하한다.

토지현황

면적	전답	임야	해안선
2.32km ²	0.98km ²	1.17km ²	11.7km

3) 공공기관

주민센터	출장소	학교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한전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	1	1	-	-	-	-	1



대경도 항공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대경도의 지형은 높은 산이 없고 남서쪽을 가로막는 경도 산성의 최고점(92m)을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구릉지형이다. 해안은 여수항과 돌산도의 사이를 지나는 여수 수도의 연장 선상에 위치하여 주변 수심이 낮고 조차는 1.3m로 약한 편이며 조류는 밀물 때 1.75Kn, 썰물 때 2.25Kn로 흐른다.

남쪽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안은 만과 곶으로 드나들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간석지를 끼고 있어서 피고막, 새조개, 반지락, 굴 등 패류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북동쪽 해안의 만입부에는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경도와 함께 내만에 위치하는 가장도, 풍락도, 노랑도 일대는 육계사주가 발달되어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중성화 산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기후는 북태평양에서 유입되는 쿠루시오 난류대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기후가 나타나며, 연평균 기온은 14℃이며, 강수량은 약 1400mm 내외로 많은 편에 속한다.

2) 자연환경

대경도는 월호동에 속한 섬으로 여수시 동남쪽 국동과 돌산도 사이에 위치한 섬마을이다. 여수시 국동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져 있어서 도심에서의 접근성과 경관이 뛰어나며 골프장과 리조트가 있어서 골프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이다. 대경도, 소경도, 야도 3개의 유인도와 부속 도서인 송도, 노도, 가장도, 풍락도, 노랑도, 암목도, 고서, 초도, 부도, 약도(남쪽의 부도), 넓섬 등 1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3) 주변환경

① 월호동(月湖洞)

1998년 2월 1일 신월동과 경호동을 통합한 동명을 월호동으로 개칭하였다. 여수 반도의 동남단과 주변 도서를 포함한 행정동이다. 구봉산 남동 지역과 가막만의 대경도, 소경도, 야도 등 3개 유인도와 13개 무인도 지역까지 포함한다. 법정동으로 신월동(新月洞)과 경호동(鏡湖洞)이 있다.

경호동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속하는 법정동으로 가막만 내에 여수시 동남쪽 국동항과 돌산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들 섬의 중심지인 대경도는 1914년 일제의 행정 개편으로 돌산군 경호면이었는데 돌산군이 여수군에 흡수되면서 여수군 두남면에 편입되어 소경도, 가장도, 야도를 병합하고, 주변 바다가 거울처럼 맑다하여 경호리(鏡湖里)가 됐다.

1973년 7월1일 여천군 돌산면에 속했던 경호리(대경도, 소경도, 장도, 가장도, 야도) 382가구 2456명 거주지와 면사무소 간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여수시로 편입됐다.



월호동

대경도에 자연마을로는 오복마을이 있었지만 경도 관광지 개발로 이주하였고, 현재는 내동, 외동이 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마을의 기운이 약하여 쌓았다는 조산이 있다. 5월부터는 초가을까지 참장어가 많이 나서 여수 10미에 손꼽히는 참장어 요리로 유명한 섬으로 한때 3년간 참장어 요리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② 가막만

바다가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간 지역을 만(灣)이라 하는데 가막섬 지명에서 유래된 가막만은 남북 길이가 15km, 동서 길이는 9km에 평균 수심 7~15m의 평균 수심 6.3m 면적 300여km²의 달걀모양으로 이루어진 내만이다.

북쪽으로는 신월동과 소호동, 동쪽으로는 돌산도와 화태도, 서쪽으로는 화양반도, 남쪽 입구는 백야도로 둘러싸여 있는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막만 안으로는 소호동의 홍합 양식과 백야도와 화양 반도, 돌산의 평사리까지 굴 양식이 성행하며 경도 부근에서는 축양과 패류 양식이 발달되어 있다.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경도 근해에서는 갯장어, 도다리, 낙지가 나며 새조개, 개조개, 개불 등이 나고 소경도와 소호동 향도마을은 옛날부터 전어잡이로 유명했다. 개도, 화태도 근해에서는 멸치, 갈치가 어획되고 감성돔, 우럭, 농어 등이 양식되고 있다.



가막만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패류위생계획(NSSP)에 준하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을 수립, 운용하면서 1987년 가막만 일대 45.76km²를 미국 식품위생국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청정해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NSSP의 허가해역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 기준에 부합되는 해역을 '수출용 패류 생산지정해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개의 지정해역 중 4

번 지정해역으로 4,188ha가 지정되어 2년마다 전국연안 패류 생산해역 위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정해역의 설정은 패류 수입의 전제조건으로 지정해역 산 패류를 요구하는 미국, EU 및 일본 등으로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근래에는 국내 유통 패류의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의 건강 보호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관리는 가막만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과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육·해상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정기적으로 감시 단속하고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행정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청정해역 위생등급의 유지는 향후 해외 패류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식물 생산해역의 등급설정 기준(고시)

등 급	기 준
청정해역	<p>패류를 생식으로 섭취가 가능한 해역</p> <p>분변계 대장균 수의 최확수(MPN) 중앙값 또는 기하학적 평균치가 14/1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43/100mL를 초과하는 시료 수가 10% 미만일 것.</p>
준청정해역	<p>정화(자연정화 또는 인공정화)한 경우 생식으로 가능한 해역, 또는 가열조리용으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한 해역</p> <p>분변계 대장균 수의 최확수(MPN) 중앙값 또는 기하학적 평균치가 14/1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43/100mL를 초과하는 시료 수가 15% 미만일 것.</p> <p>단, 주 생산 수산물 출하 시에는 청정해역의 조건(위생조사 결과)에 합당하는 4해역일 것.</p>
관리해역	<p>가열조리용 또는 통조림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해역</p> <p>준청정해역의 기준을 초과하고, 분변계 대장균 수의 최확수(MPN)중앙값 또는 기하학적 평균치가 88/1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60/100mL를 초과하는 시료 수가 10% 미만일 것.</p>
금지해역	<p>수확 금지 해역</p> <p>분변계 대장균 수의 최확수(MPN) 중앙값 또는 기하학적 평균치가 88/100mL를 초과하고, 260/100mL를 초과하는 시료 수가 10% 초과된 해역.</p>

다. 식생과 생태

1) 식생

대경도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종은 후박나무, 사스레피 등이며, 남서쪽 해발 92m 부근에 곰솔군락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섬의 도로변, 리조트와 골프장 주위에는 팔손이가 인공 식재돼 있다. 교목층과 아교목층이 발달한 상태이며, 관목층과 초본층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군락의 층위별 우점도와 균도를 보면, 교목층은 대부분이 곰솔이 우점하고, 아교목 층은 사스레피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그 외에 아교목층에는 자귀나무, 칩, 예덕나무, 말오줌때 등이 분포한다. 관목층은 주로 밤나무, 예덕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낮은 피도로 분포하고 있다.

초본층은 땃대이덩굴, 담쟁이덩굴, 계요등, 주름조개풀 등이 상대적으로 우점하고 있고, 그 외에 밤나무, 졸참나무, 자귀나무, 은사시나무, 칩, 산초나무, 사철나무, 낭아초, 멀구슬나무, 붉나무, 사스레피나무, 때죽나무, 보리수나무, 보리밥나무, 송악, 자금우, 검노린재, 방아풀, 골무꽃, 참취, 천문동, 맥문동, 나문재 나물, 번행초, 갯메꽃, 미국 실새삼, 미국자리공, 청미래덩굴 등이다.



곰솔 군락지



노린재나무



송악



팔손이나무



쥐똥나무



마삭줄



신의대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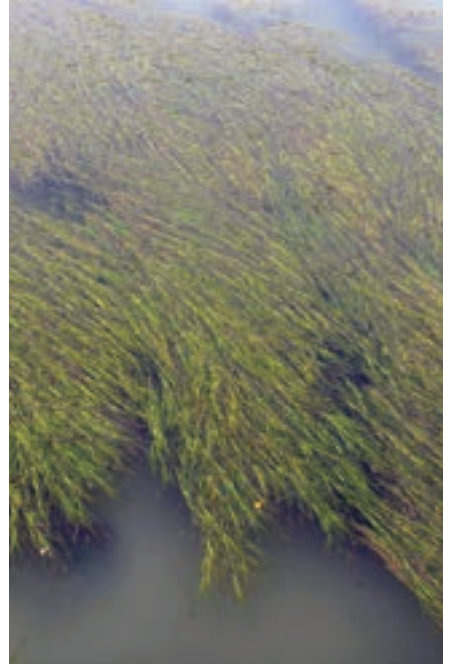
꽃풀(하고초)

2) 생태

① 잘피

개펄에서 자라는 바다풀의 종류로 사투리로 진저리, 진질이라고도 부른다. 해조류와 달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여러해살이 현화 식물로 잎과 땅속줄기, 관다발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하루 3cm가 자라는 빠른 성장 속도와 왕성한 번식력으로 불과 수개월이면 넓은 텃밭을 이룬다.

또한 잘피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질소,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 공급과 바다 수질 정화에도 큰 몫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안으로 밀려드는 파랑을 약화시켜 해양 생물의 산란처와 보금자리 역할도 한다.



내동 방파제 부근의 잘피밭(2014년)

전 세계 분포하는 잘피는 약 60여 종이 있으며 그중 우리나라에는 9종이 서식한다. 가장 많이 넓게 분포하는 종은 우점종인 거머리말(*Zostera marina*)인데 3면 바다에 서식한다. 최근 들어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해양오염으로 서식 장소와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도에서는 수년 전만 해도 물이 맑아 내동방파제 주변으로 널리 산재되어 있고 성장 속도가 빨라 밀식 해서 자랄 정도였는데 현저하게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어민들은 그 원인을 골프장 잔디에서 흘러나온 농약 성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바닷속 암반이 하얗게 변해 사막화로 진행되는 '백화 현상'을 전문가들은 잘피의 급격한 감소와 관련이 있다 하여 해수부의 주요 정책으로 매년 잘피 숲 조성을 위해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잘피를 심고 있다.

2. 역사와 문화

가. 경도의 연혁

여수시 경호동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2.32㎢이며,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1973년 1,740명이 살았다. 오랜 세월 가업으로 이어온 연안 어업 종사자가 많다 보니 다른 섬에 비해 전통적으로 토속 신앙이 깊게 뿌리 내려 있고 최근까지도 배의 안전과 선원의 무사와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를 모시고 있다.

18세기 이후 제작된 호남도서도 순천부 지도에는 경도는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 전함을 만드는 선재처와 요망대가 표기되어 있는데 경도 산성(경호동 1005번지) 주변으로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난중일기(임진년 2월 27일)에서는 군관들이 이순신 장군을 마중 나와 맞이했다는 정황들로 보아 군인들이 상주하는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도서도의 대경도선재처

경도 변천사

연혁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돌산군이 여수군으로 흡수 합병되면서 여수군 두남면이 되었고 소경도, 가장도, 야도를 병합하고 주변 바다가 거울처럼 맑다 하여 두남면 경호리(鏡湖里)가 되었다.
	1917년	두남면을 돌산면으로 개칭
	1931년	여수군 여수면이 여수읍으로 승격
	1949년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되고, 나머지 9개 면이 여천군으로 개칭되고 여천군이 신설됨에 따라 여천군 돌산면 경호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여천군 돌산면에 속했던 경호리(대경도, 소경도, 장도, 가장도, 야도) 382가구 2,456명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 여수시로 편입되어 경호동으로 바뀌었다.
	1989년	여수시가 1160억원을 투입하여 대경도 민자유치사업 공모 783,000평을 위락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을 계획

1991년 9월	경도개발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대우, 선경, 롯데 3개사 민자유치
1993년	경도개발 공사 시작 1996년 준공
1998년	시군통합 때 신월동과 경호동의 합성지명인 월호동으로 개칭하였다.
2009년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계획,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2014년	관광단지 1단계 사업 준공
2017년	경도지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2020년	경도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전남 개발공사에서 와이케이디벨로먼트) 경도지구 조성공사 착공

나. 경도의 지명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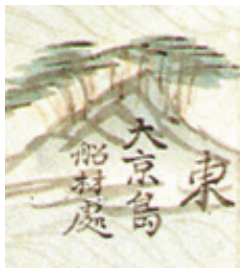
1) 경도의 지명유래

경도의 지명 유래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진다. 주위 바다에 고래가 많다 하여 고래 경(鯨)을 써서 '경도(鯨島)'라 불렀으나 그 후 왕비가 귀양을 왔다 하여 서울 경(京)자를 쓴 '경도(京島)'로 불리었고, 돌산군 시절부터는 섬 주위의 바다가 거울처럼 맑다해서 거울 경(鏡)자를 써서 '경도(鏡島)'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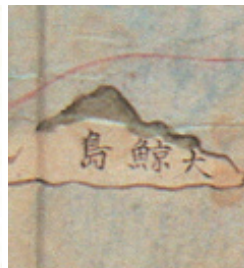
세종실록에는 1448년(세종 30년) 순천 경도(京島)에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또한 선조실록에는 1600년 순천 앞바다에 있는 경도에 진(陣)을 설치하는 문제로 '경도(鯨島)'라 했지만 동시대 난중일기에서는 '경도(京島)'로 한자를 달리해 수록되어 있다.



청구도



호남도서



호남연해형편도



대동여지도

고지도에서도 동시대에 경(京)자와 경(鯨)자를 혼용하여 쓴 흔적도 보인다. 해동지도(대동총도)에는 '서울 경(京)'으로, 지방지도(순천 1872년), 동여도(21책 3면), 대동여지도(20책 3면)에는 '고래 경(鯨)'으로 각각 달리 표기하였다. 조선지형도에는 섬 이름은 '경(鯨)'을 사용했으나 행정지명인 경호리에서는 '거울 경(鏡)'을 사용했다. 1896년 돌산군이 설립되어 군지로 만들어진 신수여산지에는 5도3서와 함께 '경호면(鏡湖面)'이 되었고 호수 같고 바다가 청명하여 거울같은고로 경도라 명명하였지만 지명에는 '大京島'로 표기했다.

열거한 여러 사례로 보아 지명에서의 경(京)자와 경(鯨)자를 한자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음만을 빌어 혼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명에 경(京)자를 썼다는 널리 알려진 유래에는 고려 말 내동마을에 왕비가 무례를 범해 유배형을 받고 귀양을 와서 낳은 옥동자에게 자신의 성인 함양여씨(咸陽呂氏)를 붙여 주었다.

경도의 여씨(呂氏) 시조가 되었다는 설화가 있지만 경도 함양여씨 경과 여수파보에 따르면 20세손(思齊)부터 경도로 입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19대 여이량(呂爾亮 1603~1669년)의 후손이니 대략 임진왜란 이후인 1600년대 초에 여씨(呂氏)들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주장으로는 당시 삼족당(김일손의 호) 김일손의 조카 김대유와 아버지는 무오사화로 삼족이 멸하는 참화를 피해 호남(여수 경도)으로 유배를 왔는데, 경성 사람이 유배 왔다고 하여 경도(京島)로 불렸고 그 자손들이 신월리 김해 김씨가문을 이뤘다고 한다.

다. 마을 유래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을 겸하고 있으며 발농사가 성했으나 관광지 개발과 노약자 증가로 소규모로 명맥만 유지되고 연근해 일대에서는 장어, 낙지, 멸치어업이 발달되고 굴, 반지락, 개조개, 피조개 등이 양식된다.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를 목표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22년 5월부터 시작됐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수풀, 인공해변 워터파크와 엔터테인먼트센터, 마리나, 해상케이블카 시설이 2025년 12월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1) 오복(五福)·오봉(五鳳)마을(경호1통)

오복마을은 구봉산에서 봉황 9마리 중 5마리가 현 오복마을 뒤 성산(城山)에 날아왔다고 하여 오봉(五鳳)이라 하였는데 약 70여년 전부터 오복(五福)으로 바뀌었다가 독립가옥들로 흩어져 있어서 경도가 개발되면서 외동과 내동으로 이주해 갔다.



철거된 오복마을 선창



오지박 마을



2) 내동(內洞) 마을(경호2통)

내동마을은 대경도 중앙부에서 서쪽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안쪽 마을인데 주민들은 '안몰'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천수답을 지었지만 농사짓기에는 토질이 좋지 않아 현재는 밭작물만 재배하고 어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주 생물은 바지락, 개조개, 새꼬막, 낙지, 참장어 등인데 장어의 섬으로 알려진 덕분에 여수시의 지원을 받아 3년간 참장어 축제를 열기도 했지만 지원금이 적고 적자가 지속 되자 중단하였다. 경호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외지인들에게 토지가 많이 넘어갔고 계획이 수정, 보류되면서 흥역을 치르기도 했다.

구전되는 설화에 의하면 고려 시대 후궁이 귀양을 와서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성산에 성(城)이 있었고 집이 지어졌다는 넓은 빈터(경호동 1012번지)에서 옛 기와 조각들이 많이 발굴되므로 대궐이 지어졌던 터다 해서 주민들은 이곳을 대궐통으로 부른다.



내동마을



내동마을 선창

3) 외동(外洞) 마을(경호3통)

여수 국동항에서 5분여 도선으로 건너면 경도의 북쪽 선착장이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은 바깥물이라고 부른다.

외동 마을의 허한 기운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쪽에 있는 인공적으로 작은 산을 만들고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 최근에는 경도 개발로 인해 옷당산의 할아버지당과 산이 헐리고 연륙교가 건설되는 부지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섬이 작고 높은 산이 없어서 물이 흔하지 않지만 갈수기에는 내동까지 가서 물을 길어 먹었다. 그런 실정에서도 천수답으로 작은 논농사까지도 지어 먹었다.

주민 대부분이 반농반어 생활을 하는데 겨울에는 낚지, 여름에는 낚시 연승으로 장어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갯장어(하모)를 잡아 일본으로 반출하는 산지였으며, 해방 후에도 2010년대까지 수출을 지속해 왔다. 마을 입구에는 참장어 요리 식당들이 즐비하여 여름철에는 성시를 이룬다.



외동마을 전경

라. 문화유적과 유물

1) 대굴통

경호동 1012번지 내동마을 부근에는 후궁이 살았던 터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



내동마을의 대굴통

을 대굴통이라 부르는데 대궐터를 의미하는 듯하다. 대궐 인근에는 신성한 우물이 있어서 이곳에서 물을 길어 안몰당제에도 사용해 왔으나 경도 개발로 인해 물이 흐르는 고랑만 남아 있으며 부근에서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되었고 빈터는 지금도 성안이라고 부른다.

후궁은 이곳에서 아들을 낳았고, 귀경을 원했지만 끝내 경도에 남아 생을 보냈다. 훗날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주어 경도의 함양여씨 당진공파의 증시조가 되었고, 여씨 집성촌을 이루고 육교 부근에 선산에 조상들을 모셨는데 여수로 모두 이장하였다고 전해진다. (인터뷰 : 여점례 할머니 85세)

2) 경도산성



경도산성

대경도의 내동마을 남단(경호동 1005번지)에 동서 방향으로 1km 남짓 산등성이가 이어져 남풍을 막아주는 산이 있는데 정상부에는 남쪽 바다의 조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경도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 92m에 높이 2m, 길이 300m의 축조연대는 미상이다. 좌수영에서 정남 방향으로 직선거리 4.3km 거리에 위치하여 남쪽 바다로 침투하는 적군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좌수영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로 추정된다.

예전에 오복마을에서 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북문이 있었지만 도로 공사에 잘려 나갔고 산성에서 남쪽 바닷가로 통하는 남문은 계단과 산성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일부 모습이 남아 있지만 아래 바닷가 쪽으로 골프장이 자리한다. 산성으로 통행하는 길은 나무가 많이 자라서 통행이 어렵고, 산성의 서쪽 일부분은 경도 개발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경도 산성



경도산성 남문계단



경도산성 남문입구

경도산성(당산성)의 전설

대경도 안몰의 앞산에 있는 경도산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날씨가 흐리고 파도가 치는 밤이면 성산(城山) 어느 곳에서 가냘프게 우는 여인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흔적이 사라지고 비바람에 허물어진 성돌만 이끼에 쌓여 있다.

600여 년 전 고려말에 안몰 마을 입구 성산에는 어여쁜 여인이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와서 외롭게 살았다. 시종들은 성산 뒤 넓은 평지에 대궐을 짓고 주변에서 큰 돌들을 가져와 21m 높이의 성을 쌓고 살았는데 소문으로는 그 어여쁜 여인이 고려왕의 후궁인데 지엄한 어전에서 실수로 방귀를 끼는 바람에 이곳으로 귀양을 온 것이라 하였다.

이곳으로 온 후 축성된 성안의 땅을 갈아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조정에 관용과 은혜를 간곡히 진언하였으나 허사로 돌아왔다. 왕비는 유배 당시 뱃속에 태아를 분만하였는데 옥동자를 낳고 왕자의 성을 자신의 성인 법중여(呂) 자로 이름을 지었다. 여(呂) 왕자는 무력무력 자라나 이웃 규수와 혼인하여 자손을 보았고, 이곳 경도 여씨의 시조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은 후궁의 억울한 사연을 가엾게 여겨 그의 추모비를 세워 명복을 빌었다는데 강점기 시대 비마저 없어졌다고 전한다.¹

3) 대경도 고인돌군

대경도 개발로 인해 고인돌 무덤은 일부만 남아 있는 곳을 실사하였으며 과거 실사된 기록을 참고하였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돌무덤이다. 주로 해안과 강가의 평야 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거대한 개석을 운반하는 데서 부(富)와 권력을 가진 지배 계급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묘의 위치와 방향, 유골 등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경도에도 많은 고인돌이 분포해 있는데 내동마을에서 경도 성으로 가는 길 주변 논과 성내에 많다. 특히 경도의 고인돌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성혈이 발견된다. 고인돌 상석은 대부분 무덤의 봉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어떤 집단의 공동 무덤을 상징하는 묘표석 또는 종족이나 집단의 모임 장소나 의식을 행하는 제단 또는 기념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여수 지역의 고인돌은 남방식 고인돌이 변화된 것으로, 넓고 판판한 1매의 상석을 지석이 받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고인돌은 대경도의 산성으로 오르는 길에 2개의 군락으로 나뉘어 27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① 경호동 고인돌 가군 고인돌은 19기이며, 2기의 고인돌에는 성혈(性穴)이 있다. 전반적으로 상석을 많이 떼어낸 흔적이 있다. 상석의 규모가 큰 고인돌의 크기는 300×170×115cm이고,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은 동서 방향이다.

② 경호동 고인돌 나군은 오복마을에서 경도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 고인돌은 8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부정형, 타원형, 장방형, 사각형으로 다양하며, 많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장축은 대체로 동서 방향이다. 경호동 고인돌군은 일부의 상석에 성혈이 표현되어 있어 고인돌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²

1 [출처] 여수문화연구소 2006년

2 [출처] 디지털여수문화대전. 경호동고인돌군 (집필자 장여동)

4) 대경도 조개더미(패총)³

대경도 신석기시대 조개더미는 개발로 인해 유실된 상태이고 현재는 기록만 남겨져 있다. 조개더미란 수렵·어로·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선사시대의 인류가 식료로 채집한 조개를 먹은 뒤 버린 껍질이 쌓여 이루어진 퇴적층으로 패총(貝塚)이라고도 한다.

조개더미 안에는 조개껍데기 외에도 당시의 인류가 잡아먹은 동물이나 물고기의 뼈, 실생활에 사용되다가 버려진 토기·석기·골각기들, 일상생활에서 남겨진 재 등도 버려져 있어 쓰레기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경도 조개더미는 4개소로 나뉜다. 그 가운데 대경도 '나' 유적이 대표적이다. 내동마을에서 해안선을 따라가다 낮은 구릉을 넘어서면 왼쪽에 유적이 위치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낮은 구릉 상에 형성된 유적은 동쪽 부분이 논으로 경작되면서 많이 파괴되었으며, 남쪽도 경작으로 훼손이 심하다.

유적의 범위는 동서 약 20m, 남북 약 50m로 패각층은 최대폭이 약 70cm 정도된다. 출토유물은 용기문토기(隆起文土器), 압인문토기(押引文土器), 침선문토기(沈線文土器), 점렬문토기(點列文土器), 어골문토기(魚骨文土器) 등이 수습되었다. 대경도 조개더미 유적이 입지한 곳은 해풍에 안전한 지대로 대체로 만입부에 해당된다.

만입부는 간석지가 발달하여 각종 어패류의 서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해류의 흐름에 의한 파도의 영향이 적다. 이 유적에서 수습된 토기는 지금까지 남해안 신석기시대의 문양 구성과 관련된 문양이 대부분이다.



대경도 조개더미 위치

3 [출처] 디지털여수문화대전, 대경도 조개더미 (집필자 이동희)



대경도 지명지도

마. 경도의 역사기록

1) 조선왕조실록

세종 30년 8월 27일 1448년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 상신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 하여 상신 하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작벌(斫伐)하여 혹은 사

사 배를 짓고, 혹은 집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여러 섬[島]과 각 곳(串)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순천부(順天府)의 송도(松島)·장성포곳(長省浦串)·삼일포곳(三日浦串)·경도(京島)·금오도(金鰲島), 광양현(光陽縣)의 묘도(猫島), 낙안군(樂安郡)의 장도(獐島)·..... 등 상항(上項) 주현(州縣)의 도(島)와 곳(串)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守令) 만호(萬戶)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0권 / 전라도(全羅道)

연산군 5년 개수(改修)를 거쳐 중종(中宗) 25년(1530년)에 증보판이 나오니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한다.

3) 순천도호부

장성포(長省浦) 부의 동쪽 60리에 있으니 고려 때 왜인(倭人)이 침입해서 여기에 이르자, 유탁(柳濯)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치니 적들이 쳐다만 보다가 그대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에 군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를 지었다.

대경도(大京島)·소경도(小京島) 모두 머포(旆浦) 남쪽에 있다. 다리도(多里島) 소경도(小京島) 동쪽에 있으니 둘레가 1백 5리이다. 대내발도(大乃發島) 다리도(多里島) 남쪽에 있으니 둘레가 1백리이다.

소내발도(小乃發島) 대내발도 동쪽에 있다. 대횡간도(大橫看島)·소횡간도(小橫看島)·금오도(金鰲島) 둘레가 2백 리이니 모두 소내발도 남쪽 30리에 있다. 아마도(阿磨島) 금오도(金鰲島) 서쪽에 있으니 둘레가 1백 리이다. 감물도(甘勿島)·안록도(安鹿島) 모두 돌산현(突山縣)에 있다. 이로도(伊老島) 백야곳(白也串) 서쪽에 있다. 소도(蔬島)·갈도(葛島) 모두 복포(伏浦) 동남쪽에 있다.

4) 난중일기

선조 25년(1592) 2월 27일

흐렸다. 아침에 점검을 마쳤다. 점심을 먹은 뒤, 북봉에 올랐다. 형세를 자세히 살피

고 둘러 보았더니, 외롭고 위태롭게 단절된 섬이다. 모든 방향에서 적을 맞을 수 있었다. 성과 못(해자) 또한 아주 엉망이었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첩사(방답 첩사 이순신)가 온 정성을 다했으나, 시설이 미치지 못했다.



대경도와 범선

어찌하랴. 어찌하랴. 늦게 배를 탔다. 경도(京島)에 도착했다. 여필(동생 이우신)과 이립(조이립), 군관과 우후(이몽구)가 술을 싣고 나와 맞이했다. 함께 즐겼다. 해가 저물어, 관아로 돌아왔다.

선조 33년(1600) 1월 28일

좌의정 이항복이 왜적의 침입에 대한 방비책을 논하는 차자를 올리다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차자(筭子)로 아뢰었다.

“임진왜란 이후 호남 연해의 백성들은 한번 수군에 예속되면 죽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토(本土)를 멀리 떠나서 한산도(閑山島)나 영남(嶺南)의 지역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남의 백성들은 수군을 귀굴(鬼窟)로 여기고 있습니다.

군정(軍情)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난 병신년과 정유년 사이에 조정에서 통제사(統制使)를 독책 하여 노량(露梁) 밖에다 진을 치도록 누차 독촉하여 왔습니다만, 수군이 감히 한산도에서 일보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안골포(安骨浦)와 가덕도(加德島) 이하의 해로(海路)의 형세가 진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호남의 군정이 일보 나아가면 그만큼 고통이 가중되고 고통이 가중되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정에 따르고 지의(地宜)를 살피 주저하며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전라 순찰사(全羅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이 통제사 이하 장관(將官)들과 상의하여 경도(鯨島)에 1진(陣)을 설치하고 고금도에 1진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데, 비변사에서 ‘통제사가 멀리 경도에 가 있게 되면 부산·거제도도 오는 적에 대해 성세(聲勢)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 구원하려 해도 반드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니, 경상우도 근처로 나아가 주둔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한효순이 이 때문에 수일 전에 신에게 서신을 보내어 ‘적이 향하는 곳을 어떻게 미

리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전함을 영남으로 다 옮기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하였는데, 이것이 상의 분부에 이른바 ‘호남 우도에 중병(重兵)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밖에 또 ‘영남에 나아가 진을 설치한다면 민심이 안정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인력도 지탱하기가 어렵고 군량도 계속 잇대기 곤란하다. 지금의 사세로는 부득불 호남과 영남을 나누어 지키는 것이 득책(得策)이다.’ 하였습니다. (이하생략)

선조 33년(1600) 1월 29일

이항복·이산해와 남방 방비책·마정·군공·봉화법·도적 대책·관왕묘 건립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좌의정 겸 도원수(左議政兼都元帥) 이항복과 영의정 이산해를 인견하였다.

(전략)

항복이 아뢰기를,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진시(辰時)에 출발하여 순풍을 만나면 오시(午時) 말에는 부산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순하지 않더라도 미시(未時)나 신시(申時) 사이에는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데, 정동풍(正東風)이 순풍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주즙(舟楫: 배와 삿대라는 뜻으로, 배 전체를 이르는 말)에 서툴다는 말은 나도 들었다. 주즙이 그들의 장기인데 어찌 우리 나라만 못할 리가 있겠는가. 믿을 수 없는 말이 아닌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이 말은 신이 익히 들은 것이어서 믿을 만합니다. 저들이 전라도를 향한다면 순풍이라 하더라도 한 번 돛을 올려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고 중간에 바다에서 유숙(留宿)을 해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도(鯨島)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순천(順天) 앞바다에서 멀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충청도로 향하면 전라도에서 알 수 있지만, 전라도의 적을 충청도에서도 알 수가 있는가?” 하니,

산해가 아뢰기를, “서해(西海)에는 해로가 하나 뿐이니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우리나라의 포작한(鮑作干)을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해로의

형세에 대해 허실을 이미 알고 있을 터인데, 먼저 충청도를 침범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적은 필시 전라도를 먼저 침범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적이 중국을 침범하려면 산둥(山東)의 제(齊)·노(魯) 지방을 이곳에서 모두 갈 수가 있다.” 하니,

산해가 아뢰기를, “중국을 침범하려면 충청도에서 가는 것이 쉽습니다.”

선조 33년(1600) 4월 4일

전라 우도 수군절도사 김억추가 해안의 방비책과 병기 문제에 대해 아뢰다 전라 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 김억추(金億秋)가 장계를 올렸다.

“본도 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의 품의에 대한 조정의 분부에 의거 하여 신(臣)이 전선(戰船) 11척을 거느리고 고금도(古今島)를 지키는 동시에 부근을 통망(通望) 하기에 마땅한 선산도(仙山島)·완도(莞島)·지도(智島)·조약도(助藥島) 등처에서 날마다 조망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산도는 진(陣)의 남쪽에 솟아 있어 외양(外洋)으로 통하는 요충지로서, 지난 을묘년 과 정해년의 왜변 때 적들이 모두 이 섬을 경유 하여 침략하였을 뿐 아니라 태평 시대에도 소수의 적들이 기회를 엿보는 변이 없는 해가 없었으므로, 모든 주사(舟師)들이 협력(合力)하여 수색하고 토벌하였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본도의 수군이란 수군은 모두 영남으로 달려가서 힘을 합하여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이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충동격서(衝東擊西)의 환란이 없지 않으므로 각도의 주사들이 나누어 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에게 소속된 각 고을 나루터의 수군은 모두 좌도의 경도(鯨島)에 예속되었으며, 그 나머지 11척만이 나누어 머물고 있는데 거느린 여러 장수들과 약속하여 항상 토벌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변란이 생긴다면 외롭고 미약한 수군으로는 이에 대응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에서 가장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현자 총통(玄字銃筒)인데 각 전선에 분배된 숫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신이 가까스로 주조해서 만든 것이 겨우 30여 병(柄)인데 역시 부족합니다. 넉넉하게 주조하려 해도 공사전(公私錢)이 모두 고갈되었으

므로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조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철물(鐵物)의 출처에 대해 조정에서 선처하소서.”

선조 33년(1600) 6월 15일

(전략) 상이 이르기를, “통제사(統制使)는 어떤 사람이던가?” 하니, 답하기를,

“신이 본디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영민하고 비범하며 날카로운 기상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엔 사졸들이 물에 익숙하지 못하여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못 진정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 장수는 수군 장수로서의 재능과 육군 장수로서의 재능이 각기 달랐는데, 이시언(李時言)은 수전(水戰)에도 능한가?” 하니,

답하기를, 이시언은 육전(陸戰)을 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는 용맹을 믿기 때문이다. 지난번 사직을 청하였는데, 지금은 병이 없는가?” 하니, 답하기를,

“심하게 아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바닷가에 오래 있게 되면 반드시 상독(傷毒)을 받기 마련입니다. 신이 경도(鯨島)·노량(露梁) 등지에 며칠 동안 있어 보았는데 바다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으며 옷이 다 젖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을 얻게 됩니다. 또 양남(兩南)의 해안은 거리가 매우 멀어 동래(東萊)에서 해남(海南)까지 거의 1천여 리가 되는데 그 사이의 진소(陣所)가 개의 어금니처럼 서로 엮물려 있으므로 부산(釜山)·경도·고금도(古今島)가 아득하여 서로 접촉되지 않음은 물론 적이 오는 지의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비하지 않는 곳이 없고 분치(分置)하지 않는 곳이 없게 하라. 부산에서 진도(珍島)·비인(庇仁)·남포(藍浦) 등지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 적이 쳐들어 올 만한 곳이니 모두 요해처(要害處)를 골라서 방어하라. 또 대마도에서는 부산이 매우 가까우므로 밤에 바다를 건너와 몰래 습격한다는 말이 전부터 있어 왔다. 공갈하는 말이지만 대마도는 뱃길로 한나절 거리라고 하니, 순풍(順風)을 만난다면 기습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3. 섬생활의 변천

가. 대경도의 생업

1) 어업

① 연승(延繩)어업

- 어선규모 : 3~20톤 이하
- 조업시기 : 4~10월 참장어, 12월~이듬해 3월 낙지
- 대상어종 : 붕장어, 갯장어, 떡장어, 낙지, 전어

연승어업은 주낙이라 하여 길게 늘어뜨린 한 가닥의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아릿줄을 달고 그 끝에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아 고기가 잘 다니는 물속 길목에 설치해두면 낚시마다 고기들이 물어서 살아 있는 상태로 낚아 올리는 조업 방법이다.

그물로 잡으면 고기들이 장시간 걸려 있는 동안 상처가 생기며 죽어 버리지만, 연승으로 잡은 물고기는 상처가 없이 싱싱하게 살아 있는 채로 올라온다. 따라서 다른 어법으로 잡은 어획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활어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도에서는 주로 낙지잡이와 장어잡이에 적용하는 어로 방법으로, 어민들이 어업에 이용하는 어선의 규모는 3~20톤 정도이다. 계절별로 어종을 달리하여 연중 조업할 수 있으며, 연승으로 잡는 대상 어종은 장어, 낙지, 갈치, 도미 등이 있다.



주낙어구

② 참장어

참장어의 다른 이름은 갯장어, 하모(일본어:ハモ)' 등으로 불리지만 여수에서는 오

랜 세월 일본으로 수출해 온 집산지여서 ‘하모’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갯장어는 개+장어에서 온 이름으로 개처럼 잘 물고 절대 놓지 않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붕장어와 유사하지만 주둥이가 길고 이빨은 톱날처럼 매우 날카로워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길이는 1m 이상까지도 성장한다.

일본의 혼슈 중부 이남, 대만(타이완), 호주 북부 및 인도양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 제주도, 동해 남부에 서식하는데 여수의 가막만과 나로도 일대에서 많이 난다. 야행성에 육식성으로 작은 물고기, 갑각류, 두족류 등을 포식한다.

우리나라 전체 참장어 어획량은 70~80년대까지 평균 6000톤이었으나, 1990년대는 2,257톤, 2000년대 1,090톤, 2010년대 1,239톤으로 감소추세이며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해 오다가 소득상승과 어획량 감소로 항공으로 소량만 수출되고 내수로 전환되고 있다.

계절별로 어가 차이가 심한데 8월 15일 이후에는 뼈가 단단해지고 지방이 과다하여 고유의 담백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즙을 내 진액으로 가공 판매한다.

③ 경도의 참장어 잡이

경도에서 참장어 어획은 통발 어업으로도 잡지만 전통적으로 연승어업(주낙)으로 잡는다. 가막만에는 4월 중순부터 연안으로 회유하여 6~7월경에 산란하고 알이 부화 되면 유생기를 거쳐 변태한다. 경도에서는 출어 때가 되면 전년에 구입하여 냉동해 둔 전어를 미끼로 출어에 나선다.



참장어

경도의 참장어 낚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전부터 생업 수단으로 이어져 오면서 2000년대까지 수출 일선에선 호황기를 누렸다. 1910년대에도 봄이 지나면 여수반도 주변과 나로도 일대에 참장어 어장이 형성되고 어획물은 대경도 바다와 나로도 바다에서 현지 위판했다. 경도 앞 해상에는 중간상들이 어민들에게 활어를 매입하여 임시로 살

리는 대나무로 만든 활어수조(竹生簍)에 살려 두었다가 활선어 운반선이 경도에 와서 참장어를 받아 싣고 일본 시모노세키항(下關)으로 가서 위판했다.

그 당시 가막만 일대는 일본어선 400여 척이 몰려와 파시를 이루었고, 가막만 시즌이 끝나면 경도 배들은 나로도 와 초도 근해까지 가서 갯장어와 참장어를 잡았다. 참장어 수출규격은 마리당 무게가 250~330g 정도이다. 이 정도가 가장 식감이 뛰어난 크기인데, 너무 크면 뼈가 역세고 기름기가 많아서 담백한 맛이 떨어진다.



1910년 대경도 당산나무가 보이는 해상의 일본배들과 활어조



경도 연승어업선



양식장

2) 양식 어업

양식 어업은 주로 대경도의 동쪽 바다에 있는 부속 도서인 송도와 노도 주변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며 치어의 양식과 굴, 홍합등의 양식이 성행하고 있다.

3) 권현망과 멸치건조장

대경도에서 유일하게 권현망을 가지고 멸치를 가공생산하는 업체로 삼양수산이 있다.



삼양수산 멸치건조장

4) 경도의 어선



1960년대



경도어선진수식
(경도회관 소장)



1980년대 어선



현대식 주낙어선

나. 관광산업

1) 여수경도골프&리조트

- 객실 수 : 100개

(26평형 8실, 36평형 65실, 37평형 19실, 47평형 8실로 구성)

- 부대시설 : 레스토랑, 연회장, 세미나실, 해수풀장, 노래연습장 등



여수경도골프&리조트

2) 세이지우드 여수경도
- 27홀 골프장 / 클럽하우스



세이지우드 여수경도

3) 경도 해상펜션



경도 해상펜션

- 주소 : 대경도 4길 41-1
- 마을 공동운영 해양펜션 & 바지(061-666-0043)

대경도대합실에서 배를 타고 이동(5분)하여, 펜션사무실에 도착한 뒤 바지선을 건너 펜션에 입실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6명까지 가능
- 월~목 : 4인 130,000원 / 금~일 : 4인 150,000원
- 입실시간 : 오전 12:00 / 퇴실시간 : 오전 11:00
- 펜션 내 비품 : 냉장고, TV, 밥솥, 에어컨, 선풍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접시, 도마, 칼, 식기, 커피포트, 냄비

4)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미래에셋컨소시엄에서는 전남 여수시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되어 해수풀, 인공해변 등 위락시설 공사가 5월부터 시작됐다. 나머지 시설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3년에는 워터파크와 엔터테인먼트센터, 마리나, 해상케이블카, 워터프론트 호텔, 송도·노도 빌라콘도의 공사를 시작하고 계획된 시설을 2025년 12월까지 모두 완료 예정이다.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컨셉을 '새로운 경험의 섬, 경도'로 정하고 △차별화된 액티비티(관광테마 시설) △오션 파노라마 라운딩(골프시설) △지혜가 깊어지는 휴식(숙박시설)로 의미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관광테마시설에는 △해양친수공간(4계절 해양레포츠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해수 풀과 인공해변, 해안산책로 조성) △엔터테인먼트센터(예술과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미디어아트 및 VR·AR 체험시설) △마리나(요트 및 유람선 투어) △해상케이블카(경도~ 돌산 노선) △위터파크(힐링가든스파) △야외 공연장 △이벤트공원 △상업시설(스트리트몰, 워터프론트몰, 세계미식문화거리)이 들어선다.

골프시설은 기존 세이지우드 여수경도 27홀 전체를 리뉴얼하고, 클럽하우스를 신축하게 된다. 숙박 시설은 △호텔 △콘도 △레지던스 △빌라 등을 건립한다.

다. 대경도의 생활 문화 복지 공간



외동복지회관



내동복지회관



오복 경로당

라. 공공기관



경도 파출소



경도 보건진료소

마. 교육기관

1) 경호초등학교

학교연혁 및 현황

연혁	1968.01.01.	여천군 경호 국민학교 인가
	1968.04.19.	경호국민학교 개교
	1973.07.01.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수시로 편입
	1984.04.14.	경호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03.01.	경호초등학교, 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교명 변경
	2013.03.01.	경호초등학교 소경분교장 통폐합
	2021.02.08.	제 54회 4명 졸업(1982명 배출)

교직원현황 (2022년)

구분	교원				일반직					합계
	교장	교감	교사	유치원 교사 (방과후)	행정 실장	주무관	조리사 (보조업)	교무 행정사	돌봄 전담사	
남	-	-	5	-	1	1	-	-	-	7
여	1	1	5	1(1)	-	1	1(1)	1	1	14
계	1	1	10	2	1	2	2	1	1	21

학생현황 (2022년)

구분	학년	1	2	3	4	5	6	특수	계	유치원
본교	학급수	1	1	1	1	1	1	1	7	1
	학생수	6	10	3	8(1)	5	6(1)	2	38	7



경도초등학교

2) 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4길 48
- 전화 : 061-665-1208
- 설립 : 1984년 04월 14일
- 운영 : 09:00~17:00 평일기준

교직원현황 (2022년)

구분	교사	학생수	합계
계	3	7	10

시설현황 (2022년)

구분	교실수	기타
-	2	통학차량 운영



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바. 해상교통

1) 국동 ~ 대경도 여객선

- 대경도 대합실 : 여수시 어항단지로 124 (국동)
- 전화 : 061-644-9033 / 010-9389-1214
- 차량탑재 가능, 소요시간 7분
- 운항시간 : 05:30~24:00
(10분 간격 운영, 21~24시까지 30분 간격)
- 요금 : 2,000원(배 안에서 결제)
- 차량요금 : 1,950CC 이상은 5,000원, 이하 4,000원

대경도 도선 역사



1950년대 나룻배



1960년대 나룻배



1980년대 월호호



2022년 경도골프리조트호



2022년 제2월호호

4. 대경도의 민속 문화

가. 경도의 당산제⁴

새해 정월은 한해를 여는 첫 달로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신성한 달이다. 그런 연유로 대부분의 도서 해안지방에서 행해지는 당제의 제일(祭日)은 선달 그믐부터 정월 보름 사이에 많이 행해졌고 부정한 일이 있거나 정일(定日)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길일을 받아 제를 올렸다.

대경도의 당산제는 외동, 오복, 내동 3개 마을이 개별적으로 지내왔는데 오복마을은 철거되었고 인구수가 급감하고 젊은이들이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4 『남도의 민속문화』 최덕원, 밀알출판사



경도의 당산

1) 외동마을 당제

동사무소가 신월동으로 이전하기 전만 해도 외동마을은 1200여명이나 살았다. 외동은 마을로 들어가는 우측 산 정상부에 위치한 당집을 윗당산 할아버지 제당이라 하는데 한 칸 규모의 대리석 건물로 철제문이 달려 있고 주변에는 몇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그리고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는 당집을 아랫당산 할머니 제당이라 부르는데 아래 당산 당집은 40여년 전에 한 칸 정도 크기로 기와지붕에 단청까지 입혀 화려하게 신축하였다. 당제를 언제부터 모셔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산나무의 수령으로 보아 500여년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설달 그믐날 밤 10시경에 당집에서 제를 모시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를 “당제를 모신다”고 한다. 제를 모신 후에도 마을에 변고가 생기면 재를 다시 모시기도 했으며 음력 칠월 칠석날에도 당주가 아랫 당산에서 간단히 제를 모셔왔다.

경도 당산나무 유래는 풍수를 믿던 조상들은 마을의 기운이 허한 지형에는 당산목을 심는데 동편에 당목은 청룡의 기운으로 자손이 번영하고 서편의 당목은 백호의 영험으로 선영들의 극락왕생과 재물의 번창을 이룬다고 믿어 왔다. 경도 외동마을 주민들

은 서쪽의 기운이 허하다 하여 서쪽에 흙을 쌓아 조산(造山)을 만들고 당산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외동 당제

한그루는 훗날 크게 자라 멀리서도 경도임을 알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된 할아버지 당산나무이고 또 한그루는 외동마을 앞에 심어져 항상 주민들을 보살피는 할머니 당산나무가 되었다. 외동 당산나무의 유래가 전해지는데 오랜 옛날 마을에 자손이 없던 노부부가 자식 대신 매일 같이 두 소나무를 돌보았는데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려 하자 두 소나무에게 마을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부부가 돌아가시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윗당산 소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로, 아랫당산은 할머니 나무로 정하고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이 되면 윗당산 당집 안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라 쓰인 신위로 모셔두고 마을의 재앙을 막고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가 진행된다.

당산제를 주관하는 당주는 제를 모시기 4일 전에 마을총회를 통해 덕망 높은 분으로 원당주와 접당주 1명씩을 뽑았지만 지금은 당주를 서로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한 분만 선출하고 제비를 포함한 수고비도 지급한다. 예전에는 당주에게 마을의 전답을 임대해 주기도 했다. 제비는 예전에는 당주가 제를 모신 뒤에 결산을 보고한 뒤 가가호호 할당하여 걷었으나, 지금은 마을 자금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제를 모실 무렵에 마을 사람이나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면 이장이 기부금 명단을 마을에 관한 일을 자세히 기록해 주는 진세 문서에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가 (동이 통합되면서 이 문서는 없어졌다) 당주에게 알려주면, 당주가 제 모실 때 일일이 호명하며 구축하고 소지를 올린다.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은 모두 당주가 관리한다.

당주로 정해지면 그날부터 초상나거나 출산한 사람들이 함부로 당주 집에 들어가는 안 되고 초상난 집이나 출산한 집 출입도 삼가는 등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당주는 1년간을 근신한다.

당제에 필요한 음식 마련은 당주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여수 시장에 나가 장을 보면서 부정 탈 우려가 있어 물건 값을 절대로 깎지 않는다. 제물은 사과와 배, 꿀, 꽃감, 밤, 대추, 명태, 미역, 나물, 메, 서대, 민어, 감생이, 새우, 육고기와 막걸리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당주 집에 차릴 음식과 당산에 차릴 음식을 구분하여 장만했다.

제를 모시기 위해 전날인 선달그믐날에는 마을 사람들은 당집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당산나무에는 금줄을 감아 놓았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당제를 모시는 당일에는 당주는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을 정갈히 한다. 당주가 소변을 보면 손을 씻고 대변을 보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런 번거러움을 피하려고 먹는 것까지도 자제했다. 또한 마을 사람들과 당주가 만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자정에 제를 올렸으며 주민들도 그믐날 저녁은 외출을 삼갔다.

밤 9시 30분이 되면 당주는 당주 부인과 함께 준비한 재물을 들고 윗 당산으로 올라가 제를 모시는데 제물은 간소하게 준비하고 제의도 간단하게 한다. 그리고 당주 외에 마을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는다.

윗당산에는 당집안에 보관하는 제기를 깨끗이 닦은 후에 제물을 진설한 뒤 당주가 헌작하고 재배한다. 10시 30분 정도 되면 당주는 집으로 내려와 별도로 준비한 제물을 들고 아랫당산으로 간다. 진행순서는 비슷하나 윗당산 보다 제물을 걸게 장만하고 재배를 3번 한 뒤에 구축을 하면서 미리 작성한 기부금 명단을 보고 일일이 그 사람들의 가내평안과 건강을 축원해준다. 구축과 소지를 끝으로 모든 제의가 끝난다.

제를 모신 뒤에는 당주가 아랫당산의 소나무 가지에 짚으로 쓴 명태를 금줄로 묶어

두었다가 다음 해에 재를 모신 뒤 갈아 치운다. 당주의 부인은 오곡밥과 물밥을 만들어 오곡밥 3개는 참종이에 싸서 아랫당산 옆, 노인당 옆, 교회 옆에 하나씩 묻은 다음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밥을 뿌린다. 대략 새벽 1시가 되어서 마무리된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 되면 주민 개개인이 집에서 준비한 상을 할머니 당산에 푸짐하게 차려 놓았다. 제가 끝나면 당산에서 음식물을 향토에다 묻는 헌식을 하고 난 후 풍물패와 함께 당주 집으로 가서 다시 제를 올려 의식을 마친다.

이 마을에서는 제를 모시기 전에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제를 모신 후에 굿을 쳤다. 제를 지낸 이후에도 당주는 1년간 상갓집이나 굿은 데를 가지 않으며, 남과 딸다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당주에게는 조심했다. 만약 당주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해는 흉어와 흉년이 들며 질병으로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정성스럽게 모셨던 당주는 뒤에 아들을 보았다는 영험담이 전해진다.

그리고 마을에 급한 사정으로 한 해 거른 적이 있었는데 재앙이 많이 일어나서 이후로는 따로 길일을 받아서라도 빠지지 않고 모셔왔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아랫당집 축대 아래로 큰 도로가 생기면서 할머니 당산나무 뿌리를 다치게 되었고 점차 고사되어 가자 수령 600여년이 지난 윗당산의 할아버지 당산나무도 이유없이 고사되고 말았다 한다.

2020년 11월 경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당산과 고사한 할아버지 당산나무는 철거되었고, 국동과 연결되는 연륙교가 들어설 자리로 정해지면서 부지 정리가 진행 중에 있다.

2) 내동마을 당제

여수시 경호동 내동마을의 안녕과 한 해의 무고를 기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제사이다. 내동마을은 언제부터 지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선달 그믐 자시에 마을 공동으로 당제를 모신다.

오래 전에는 절에서 생기복덕을 봐서 당주와 부당주를 선정하기도 했으나 이후 생기복덕을 잘 보는 노인회장에게 선임을 부탁한다. 20여년 전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생기복덕이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해 해당자가 없어 같은 해 정월 보름에 모신 적이 있다. 내동 당산목은 600년 된 노거수 해송인데 지난 2021년 이유 없이 고사하고 말았다. 새로운 당산목은 지구 온난화를 염려해 느티나무로 수종을 변경하여 식목하였다.



내동의 고사된 당산목과 새로 식수된 당산목

음력 12월 29일에는 당산제 제관 당주 1명과 부당주 1명을 선정하고, 30일 해시에 당산나무 원방향으로 꼬은 금줄에 명태를 꿏고 당산제 시작을 알린다. 자시가 되면 제물을 진시하고 특히 당주가 직접 빗은 막걸리를 쓴다.

진설 후 초헌-아헌-종헌 순으로 제를 진행하고 제물을 당산나무 옆 돌에 묻는 물밥을 한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제물을 당집 앞에 놓고 굿소리에 맞춰 절을 올린다. 당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동으로 간 일이 있어 5일간 지성 끝에 다시 모셔졌다.

경도의 당목

마을	당목위치와 수종	둘레x 높이	수령 (년)	제의 (음)	영험
외동	마을뒷산	윗당 3.3x20m 아랫당 4.8x20	530 고사됨	음력 1월1일 자시	· 당산목을 화목(火木)으로 쓰면 가환(家患)이 있고 본인이 거의 죽는다. · 윗당 당산나무는 먼 바다까지 보여 뱃길의 이정표로 삼는다.
내동	마을동쪽	3.6x20	530 고사됨	1음력 1월1일	· 당할머니, 할아버지가 외동으로 간 일이 있어 5일간 지성 끝에 다시 모셨다.

나. 대경도의 설화와 민요

1) 경도에 귀양 온 어느 후궁 이야기

고려 말 어느 해, 이곳 내동마을 앞 해발 약 100m 성산에 미모의 여인이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시종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성산 뒤쪽 평지에 커다란 대궐을 짓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부근 해변과 산지 주변에서 커다란 돌을 주어다 21m 높이의 성을 쌓아 올렸다.

바람결에 들려온 소문에는 이곳 섬에 정착한 미모의 여인은 왕비이고 그 밖의 시종들은 조정의 신하들이라 했다. 이곳으로 쫓겨 온 사연은, 어느 날 왕비가 지엄한 어전에서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청천벽력 같은 유배형을 받고 귀향 온 것이라고 했다.

이후부터 왕비는 축성된 성내 4천 5백여 평의 땅을 갈아 춘하추동에 따라 갖가지 씨를 뿌리고 거두어 차차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궁궐을 잊지 못한 왕비는 조정에 나아가 관용의 은혜를 간곡히 진언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시 경도로 돌아온 왕비는 옥동자를 낳았다.

왕비는 이 옥동자에게 자신의 성인 함양여씨(咸陽呂氏)를 붙여 주었다. 왕자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나 이웃 규수와 혼인하여 가문을 번창시켰다고 전해진다.⁵

2) 경도를 지키던 신목의 전설

경도에는 수년 전 점차 누렇게 고사되어 버린 외동의 당산목에 관한 전설이 내려온다. 600여년 세월을 경도를 지키던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신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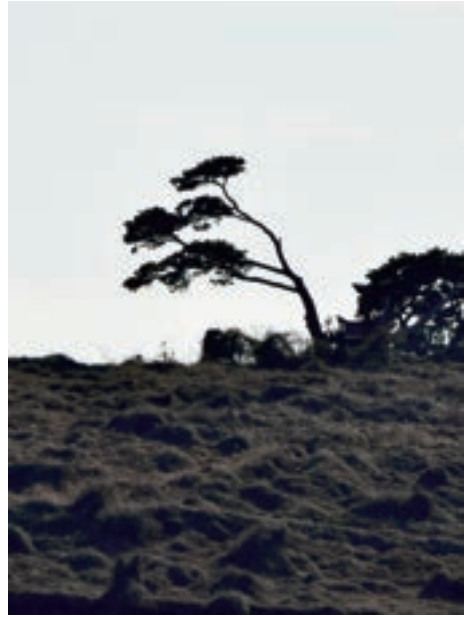
이 신목이 심어진 것은 경도의 서쪽 기운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흙을 돌아 조그마한 조산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기운을 보하기 위해서였다. 자손이 없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나무 두 그루를 심어 자식처럼 돌보았는데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력이 쇠해지자 소나무에게 유언으로 ‘마을을 지키는 이정표가 되라’고 당부하면서 돌아가셨다.

이후로 500여년 간 마을과 주민들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는데 2007년 아랫당산

5 [출처] 향토문화전자대전, 경도에 귀양 온 어느 후궁 이야기

할머니 소나무가 시름시름 점차 노랗게 변화하면서 말라 죽자 멀리 떨어져 있는 옷당산의 할아버지 소나무도 차츰 말라서 고사해 버렸다.

이를 미리 알았을까 수년이 지난 2021년 할아버지 당산 나무터는 경도 개발에 산이 깎이고 연륙교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할머니 당산나무는 5~6년 전에 다시 식수한 상태이다.



경도의 신목

내동마을 또한 수령 650년 당산나무 아래 당산제를 지내왔지만 2021년 이유없이 고사되어 후계목 당산 나무로 모시고 있다. 전에 당산제를 지낼 때는 참석자들은 목욕한 후 제사를 모시는데, 그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그해에 사주 등을 봐서 액운이 없는 사람이 당산제를 모셨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방송을 통하여 개가 짖는 등의 소리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조치하고 당산제를 지낸다.

선달그믐(음력 마지막 날) 마을 큰잔치로 치렀으나 시대가 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 자체의 풍물패를 구성할 수도 없고 기독교 신자가 늘어 감에 따라 현재는 많이 간소화돼 약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섬에서 당산제가 소멸해가고 있지만, 일부에선 마을의 안녕과 어부들의 만선을 위해, 당산제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다. 경도의 풍속

우리나라에서 1895년부터 양력을 써 왔지만, 그 이전은 물론 지금도 어촌에서는 물때를 계산한다든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세시풍속은 음력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는 월력이 생산력이었다.

문화 오락이 빈약한 섬지방에서는 절기에는 특별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공동체 행사도 겸해 왔다.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여수 섬 지방에서는 고전적인 절기와 상관없는 날도 의미를 부여하여 연중행사로 공동체의 풍습을 이어 왔다.

1) 그믐 풍어제

1970년대까지도 선달그믐날은 선주 부부가 풍어와 뱃길의 무사를 비는 갯제를 모셨다. 갯제는 어장제, 용왕제, 풍어제라고도 한다. 오후 4~5시경이면 제물을 장만하여 선상에 가지고 와 진설한다. 제물은 메, 돼지머리, 국, 나물, 과일 등이며 생쌀을 담은 그릇에 촛불을 켜 놓았다.

“올해 운수 대통하고 어장에서는 만선을 빕니다.” 심축과 함께 술을 올린 후 제 배를 올린다. 파제 후에는 선주 부인이 제물을 바다에 헌식한다.

2) 1월 설

설을 원단(元旦:설날 아침), 원일(元日), 정초(正初)라고도 한다. 조상들은 한해의 출발점인 이날은 언행을 삼가고 새해를 맞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은 모두 일손을 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른들을 찾아 세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다.

이날 대접하는 음식을 세찬이라 하는데 떡국이 대표적이다. 경도에서는 보통 그믐날 당산제를 모시고 나면 집집이 대야에 밥을 담아 아랫당에 상을 차린 후 헌식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여 메구를 치고 놀았다.

3) 월별 풍속

1월보름 : (상원 上元)

선달그믐에 당제를 모시는데 길게는 정월 보름까지도 메구를 치며 정월을 보냈다.

정월 보름의 절식은 오곡밥이나 약밥인데 섬지방이라 구할 수 없는 곡식은 빼고 팔만 넣어서 보름 전날 이웃과 함께 나물, 무, 배추 등을 곁들여 나눠 먹었다.

2월 영등제

영등은 바람을 관장하는 할머니 신인데 음력 2월 초하룻날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2월 15일에서 20일날 하늘로 올라가는데 마지막 손이 올라갈 때까지 장독대나 부엌에 정화수를 떠 놓고 빌었다.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두 딸을 데려오면 바람도 없고 날도 좋은데 며느리를 데려오는 날은 딸보다 예쁘게 보이는 게 싫어서 비를 몰고 오신다고 한다.



영등할머니 모시기

경도에서는 쌀로 만든 지지 곱지 떡을 만들어 먹는데 먼저 떡을 해서 다시 끓는 물에 넣어 고물을 문힌 떡이다. 부엌에서 밥을 먹을 때는 영등할머니가 낮가림이 많으니 부정 타지 않도록 부엌에 자기 식구들 외에 외부 사람을 들이는 것을 터부시했다. 음식을 차릴 때 맛을 본다고 먼저 먹으면 입이 붉혀 버린다거나 해서 금기시했다.

3월 삼진날

3월 3일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이다. 진달래꽃이 피는 무렵이라 꽃잎을 따서 깨끗이 씻은 다음 찹쌀가루로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든 위에 올리고 프라이팬에 올려 전으로 지진 것을 화전이라 하는데 진달래꽃이 없는 섬은 다른 행사를 했다.

보통 단옷날, 삼진날은 물에 관한 행사를 하는데 경도는 선달그믐 당제 날 상당제를 지낸 뒤 집단제의로 용왕제를 지내지만, 출어 시기에 도래하는 3월 3짚날에도 용왕제를 모셨다.

4월 초파일

어민들은 토속 신앙 외에도 불교를 믿는 집은 절을 찾아 복과 안녕을 빌었다.

5월 단오(端午)

육모초를 떡에 넣어 푸른색을 떡을 해 먹는다.

6월 유두(流頭)

음력 6월 15일 유두에는 전통적으로 몸을 정갈하게 씻고 잔치를 하는데 남자들은 액막이 술을 마셨고 여자들은 떡을 만들어 먹었다. 소경도에서는 모든 밭마다 지석 바위가 있어서 이 지석 바위에 상을 차려 놓고 제를 모셨다.

7월 칠석

음력 7월 7일 칠석에는 다례라 하여 올해 수확한 벼를 사당에 천신한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집안이 잘되기를 빌었다. 개장을 만들어 밥을 말아 먹고 땀을 흘린다. 참외, 수박 등 과일도 이때가 제철이다.

8월 추석(秋夕)

햅쌀로 송편을 만들고 무, 호박을 썰어 넣어 시루떡도 만들어 먹는다. 닭고기와 토란국도 추석에 많이 먹는 절식이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마을의 주요 행사는 없다.

12월 동지(冬至)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양력으로는 12월 22일에 해당하는데 구정 다음으로 큰 명절로 작은 설이라 했다. 이는 태양이 도는 1년의 시발 일이기 때문에 설과 견준다는 데서 유래했다. 동짓날은 팔죽을 썬서 먹는데 팔죽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쳐 주었다. 팔죽을 썬 때는 찹쌀로 새알 모양의 찹쌀 심을 만들어 넣어 먹고, 붉은색이 잡귀를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문에 뿌렸다.

라. 주민들의 생애사

1) 대경도와 함양 여씨(呂氏)

경도는 오래전부터 여씨(呂氏)의 집성촌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후손이 살고 있다.

함양여씨가 대경도에 언제부터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설화 속 여씨는 고려말에 경도로 귀양을 온 후궁의 소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도 여씨는 함양여씨(咸陽呂氏)이다.

함양여씨의 시조 여어매(呂御梅)는 당희종 때 한림학사를 역임하였는데, 황소의 난을 피해 877년(헌강왕 3년) 신라로 귀화하여 고려에서 전서(典書)를 지냈다. 최초로 정착한 곳에 따라 함양여씨와 성산여씨로 갈라진다.



경도 함양여씨 족보

10세손 여칭(呂稱)은 고려조에 전라도 안렴사를 지내고, 조선 태조 때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의 증손 여자신(自信)은 병조판서를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 되었다. 여칭의 8대손인 여유길(呂祐吉), 여유길(呂裕吉)이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광해군 때 관찰사와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여유길 아들 여이징(呂爾徵)은 1624년(인조2) 문과에 급제하여 경기도 관찰사, 한

성부좌윤,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여씨 족보의 여수파보(1985년)에 의하면 조선 숙종 30년(갑신년. 1704년) 문학공필중, 시낭공필용, 자정공필관 세분이 보사에 착수했다. 여수 경도는 20세손인 사제(思齊)가 입도조이고 19세손인 그의 아버지는 이량(爾亮, 1603~1669년)이니 1600년대 초 무렵에 경도로 입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산은 경호동 990번지 부근이었으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음력 10월 3일에 시제를 모시고 있다.

2) 경도의 하모 전문식당 유래

경도에서는 계절별로 출어를 하는데 주종은 낙지와 참장어다. 참장어 잡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주낙으로 잡는다.

긴 모릿줄에 일정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아래 낚시를 매달아 조업하는 어로 방식인데 4월 중순이 지나면 연안으로 올라와서 산란이 끝나고 다시 먼바다로 회유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경도 어민들은 이런 습성을 일찍이 터득해 참장어 잡이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참장어는 길이 1m 이상까지도 성장하는데 남해안에서는 주로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어장이 형성된다. 한국인들은 뱀처럼 생겨 징그럽다고 기피 했던 참장어를 일본인들은 더운 계절에 긴 것을 먹으면 정력이 붙는다는 풍습 때문에 바다도 없는 내륙의 교토 지방에서는 한 달간이나 장어 축제가 열리고 오사카와 고베 등지로 고가에 팔려나가느라 여름철이면 수출 주력 상품으로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때문에 참장어 내수는 생각지도 못한 시절이 있었다.

경도가 참장어 요리로 유명해진 동기는 그리 오래지 않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면서 고가인 참장어를 내수로 돌릴만한 물량도 부족하였고 소량 나오는 수출규격 외 품 일부분이 경도에서 어부들끼리 소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수 사람들은 저렴한 아나고 장어탕을 즐기던 시절이었다.

1993년 경도에서 가장 먼저 참장어 전문식당으로 미림횃집이 문을 열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하나들 식당이 늘어가자 어느덧 경도는 하모의 섬이 되었다. 미림횃집 주인장인 박동연(83) 씨는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경도 어민들에게 전도금을 미리 주고 참장어를 잡아 오면 받아서 수출 회사에 넘기는 중개인 일을 28년여 해왔다.



하모의 섬 경도



하모 식당가

어느 날 해운항만청에 근무하던 지인이 동료들과 경도를 찾아와 “참장어 회가 먹고 싶으니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장어탕과 회를 해 주었는데 맛을 보고서는 매주 찾아 오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

하모는 길이 50cm에 몸통이 8cm 정도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무게가 7kg 이상은 수출규격 외 품이어서 식당의 단골에게는 특별히 몸보신용으로 제공되었는데 단골손님 중에는 하루에 3번까지도 식당을 찾는 열성 손님도 있었다고 한다. 참장어

수출규격은 한 마리당 무게가 250~330g 정도인데 가장 맛있는 크기이다. 너무 커도 뼈가 억세고 기름기가 차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전체 갯장어 어획량은 70~80년대까지 평균 6,000톤이었으나, 1990년대는 2,257톤, 2000년대 1,090톤, 2010년대 1,239톤으로 감소추세이며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해 오다가 소득상승과 어획량 감소로 항공으로 소량만 수출되고 내수로 전환되고 있다.

계절별로 어가 차이가 심한데 8월 15일 이후에는 뼈가 단단해지고 지방이 과다하여 고유의 담백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줄어들어 즈을 내 진액으로 가공 판매한다.



박동연 씨 결혼사진



하모 요리 원조 박동연 씨

3) 여자 어부 정승엽 할머니

정 할머니는 오복마을에서 살다가 경도 개발로 내동으로 이주해 오셨는데 50년 전 화양면 웅천 정씨 가문에서 22살에 경도 총각에게 시집을 왔다.

할머니는 작고하신 할아버지가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인지 “경도 사람들은 장어 주낙, 낙자 주낙을 잘하고 술 잘먹은 사람들 뿐이다”고 이야기를 풀어 놓으신다.

▶ 낙지가 꽃 보러 올라온다고요? 정말인가요?

진달래꽃이 필 때면 바닥에 물이 나면 바위 밑에 낙지, 돌게 등이 많이 있어서 손으로 잡는다. 말이 꽃필 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갯으로 나온다는 말을 꽃따 먹으러 올라온다 그래! 쭈기미는 낙지와 모양은 비슷한데 크기가 잘잘해. 봄이 되면 쌀자루 같은 알을 품는데 쭈기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낙지랑 같이 나오는데 철이 지나면 빠시고 가실이 돼야 맛있다.



여자 어부 정승엽 씨(73세)

4월 보리누름에 출어하면 열무 새 물 때에 나가서 서물이 넘으면 그쪽은 물이 빠져니 집으로 돌아오지. 한번 나가면 열흘씩 바다에 나가 살지. 갈 때는 반찬도 챙기고 이불도 싸서 배에 싣고 가서 조업하다가 날이 구질 때는 여자도에 정박을 해놓고 민박을 했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 매번 잘 가는 단골 민박집이 있어.

바닥에서 섬달천은 교통이 좋아서 고기를 잡으면 동네 배들과 어울려서 섬달천이나 이목으로 차를 오라 그래. 참 좋아졌지. 전화만 하면 상회 화물차가 달려오거든. 장어도 가막만 장어 철이 끝나면 넘자까지 장어를 잡으러 다녔지.

바지락 영은 일 년에 설 될라 그럴 때 한번 뜬다. 전에는 엄청 많이 나서 잘한 사람은 2~3동우씩 하고 못 판 사람은 반동우도 못하지. 두동우를 하면 한동우는 어촌계에 내면 나중에 팔아가지고 전부 노나먹어. 양식장에는 피조개, 새조개가 많이 나오는데 입찰해서 수이익금은 사람 개수로 갈라 묵는다. 참장어는 5월부터 서두르는데 서바닥까지 잡으러 간다. 배는 많을 때 150척 정도나 됐다.

3톤 배는 부부간에 가니 남자가 제일 멀리 나간건디 주낙을 추려놓은 통을 주낙바쿠라 하는데 한배가 보통 70바쿠씩 가지고 간다. 요즘은 주낙에 낚시를 많이 달아 쓰니 옛날에 비하면 절반 정도나 가져가지. 낙지 주낙 한바쿠는 낚시가 150개 정도 달려 있는데 선창에 작업 다녀온 바쿠를 퍼 놓으면 한바쿠 캐는데 6000원씩 준다하네.

참장어 미끼는 설에 전어를 사서 냉동회사에 입고비를 주고 냉동을 시켜 놔다가 봄에 조금씩 빼쓰고 새전어가 나오면 장어가 냉동은 안묵으니 새전어로 바꿔 쓴다.

요새는 큰 배도 둘이 일 나가면 35바쿠씩 가져가고 배에 주낙 기계를 단 배는 그물을 올릴 때 장어가 물고 있는 낚시만 잘라서 물칸에 넣지.

장어가 끝나면 낙지는 음력 10월에 나간다. 동바닥(돌산쪽 바다)도 가고 어떤 배는 서바닥으로 가는데 우리 같은 작은배는 가막섬 바닥으로 간다. 넘자는 하늬바람이 불면

영 무섭다.

요새는 철이 늦어져서 5월까지나 하고 잠깐 쉬었다 하모를 잡으러 간다. 많이 잡으면 몇 백kg씩도 잡지. 우리같은 작은 배도 많이 잡으면 300~400kg씩 잡고 물장이 작은 배는 두개뿐이어서 고기가 죽어 버리니까 이틀만에 들어와야 한다.

낙지를 잡으면 빠신 비니루 속에 담아 산소를 넣어 주면 비니루를 타고 놀아서 흠이 안난다.

▶ 마을 풍속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지요.

동네에서 제일 큰 잔치는 설에 당제 모실 때지.

당주를 돌씩 선출해서 마을에서 경비를 조금 주는데 가끔 설달그믐에서 정월 보름 날로 미뤄 지낸 것은 당주가 상을 지냈든지 굶은 데를 갔다 오거나 개고기를 묵었다거나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보름으로 넘겨 지냈지. 당제를 모시고 나면 당주 집에서 메구를 치고 집집이 상을 차렸는데 요즘은 시내에 가서 맞춰 버리더구먼...

2월에는 영등할매를 모시지. 이때는 고기, 떡(찰떡, 썩떡)을 해. 많이 하지. 유두에는 밭에 가서 나물이랑 부침개도 부치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밭을 타 가지고 와서는 상을 차려 갖고 제를 모시고 나서는 밭 갓쪽에 묻었다. 칠석도 지냈다.

5. 대경도 부속섬

가. 송도

1) 일반개요

- 행정구역 : 여수시 경호동 산 86
- 면적 : 11,054㎡
- 토지소유현황 : 공유지, 여수시



송도 지형도



송도

① 자연 경관

송도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사이에 위치하는 섬으로 돌산읍 우두선착장으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해발고도는 약 130m로,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장반경 원형에 가까운 섬이다. 좌표는 북위 34° 42' 53", 동경 127° 44' 8"이다.

② 지질 경관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증성화산암류(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을 따라 응회암 기반의 타포니(Tafoni)가 발달해있으며, 북쪽 해안에는 해식 단구가 발달해 있다. 또한 해수의 침식에 의해 형성되는 돌개구멍이 관찰되며 대규모의 풍화혈도 관찰된다.



해석의 풍화



타포니(Tafoni) 해변



풍화혈(노치-Notch)



해식단구

③ 식생 경관

기후적으로 난대에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대는 북위35°까지의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포함한 여러 섬들에 분포한다. 구성종은 곰솔, 사스레피나무, 노린재나무, 소사나무, 감나무, 자귀나무, 굴피나무(군락), 누리장나무(군락), 보리밥나무, 뽕나무, 팔배나무 및 칩떡쿨, 담쟁이덩굴, 참억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리밥나무



밤나무



예덕나무



노린재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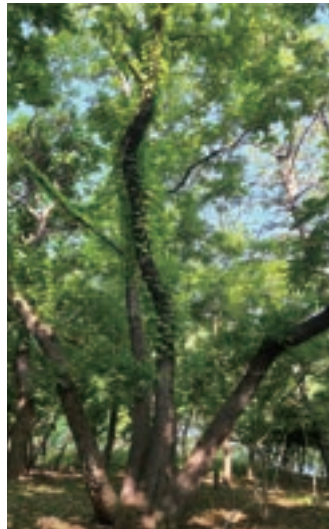
굴피나무 열매



팔배나무 열매



곰솔(수령 약 80년)



굴피나무(수령 약 40년)



팔배나무(수령 약 40년)

나. 노도

1) 일반개요

- 행정구역 : 여수시 경호동 산87
- 면 적 : 4,681㎡
- 토지소유현황 : 공유지, 여수시



노도 지형도



현장 위치도

① 자연 경관

노도는 돌산도와 대경도 사이에 위치하는 섬으로 대경도로부터는 약 300m, 돌산도로 1.1km 떨어져 있다. 이 섬은 장축 약 단축 약 로 경사가 완만하지만 중간중간 풍화되지 않은 거력이 있어 이동에 방해가 된다.

인근 지역민이 풀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흑염소가 발견되었으며 섬 주변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어구가 방치되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 노도의 좌표는 북위 34° 42' 35", 동경 127° 44' 30"이다.



방목 염소



폐어선 및 폐어구

② 지형 경관

노도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이 장방형의 굴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은 주로 암반으로 구성되었음. 부분적으로 자갈 해변이 소규모로 나타나며, 해안을 따라 타포니(Tafoni), 풍화혈, 해식동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타포니(Tafoni)와 해식동굴 해변에 발달한 노치(Notch) 포획암 대형 노치(Notch)

③ 식생 경관

식물군락은 주로 굴피나무 군락지(90%이상 차지)이며 자귀나무, 곰솔, 노린재, 팔배나무, 담쟁이덩굴, 칩 등이 있고, 식물은 자리공, 엉겅퀴, 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도는 극상림이 되어 있었다.



굴피나무 군락지 자귀나무 사스레피나무 밤나무



미국자리공 엉겅퀴 칩에 둘러싸인 나무 띠